제329회국회
(정기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2월3일(수)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통일부 현안보고
2.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3. 활동중간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2.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1
3. 활동중간보고서 채택의 건 ····· 3
1. 통일부 현안보고 ····· 3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원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정기회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326회 제1차 회의를 연 이후 7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8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업무보고 및 아시안게임 관련 통일부 준비상황에 대해서 통일부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며, 9월 15일 제4차 회의에서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 관계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주한 일본대사와 중국대사를 초청하여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동북아 평화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두 차례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우리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종합 정리된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또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그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한 중간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통일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07분)

○위원장 원혜영 의사일정 제2항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의안 초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재중 간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委員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유재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마련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지만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한 채 대결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 및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준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아울러 북한당국에게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관계 및 통일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 동질성 회복,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을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이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유재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원혜영 예,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병석 위원 4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식어를 다 빼고요, 그냥 '식량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근본 취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 근본 취지에 다소라도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요약드리면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지우고 '식량 등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지금 박병석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그런 내용을 지금 예시해 주신 문구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거기다가 '식량, 의료 등'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金光琳 委員 그렇게 하면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 같고, 현재 여기도 보시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柳在仲 委員 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원혜영 예,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쓰도록 하시지요.

그러시면……

○金光琳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원혜영 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金光琳 委員 '주문'이 이게 법원의 판결문 같아 가지고, 죽 이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시 뭐 의견 전달에 그게 없으면 끊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줄에 '유감을……' 하는 데에 '표명한다', 그다음에 '정부가……' 죽 해서 가 가지고 끝에서 두 번째 줄에 '통일준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한다' 그다음에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가는 게 세대들이 읽는 데 좀 좋을 것 같고.

동의를 해 주시면 여섯 번째 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를 그냥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위원장 원혜영 그것은 몇 번째 줄에 있지요?

○金光琳 委員 ‘주문’ 여섯 번째 줄에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장 원혜영 예,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다듬어서 제안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 중에서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활동중간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원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활동중간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활동중간보고서 초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올 4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활동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현황과 오늘 회의까지 제5차 회의 및 두 차례의 간담회를 포함한 활동경과 및 활동내용을 기술하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적시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을 보시면 연장 사유로는 남북관계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한 채 대결 상태에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 및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당초 구성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 특히 결의안에서 국회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결의하고 남북 당국 간 조속한 대화 실시 및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통일준비를 촉구하였는바 결의안 주문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금 설명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활동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금 채택된 중간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통일부 현안보고

(10시17분)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웅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정준희 정세분석국장입니다.

백태현 교류협력국장입니다.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수영 남북회담본부회담기획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해서 체제 안정화를 위해 권력구조를 정비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부 인사들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한편 각종 기층조직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엘리트층과 기층조직 모두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형적으로 다소 호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올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 비난과 위협을 강화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선 제의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기도 하면서도 그 직후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 중단을 고위급접촉 개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활발한 대외 행보를 통해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러시아·아프리카·EU 등을 방문해서 경제협력 및 인권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복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대북 압살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국방위 성명 등을 통해 초강경 대응전을 위협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남북회담 추진 동향입니다.

남북은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10월 30일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문제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고위급접촉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당국자접촉이 개최되었습니다. 북측은 자기 측 주장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 진입 금지, 대북 전단살포 중단, 언론의 비방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서해 NLL 존중과 준수를 강조하고 우리 체제 특성상 당국이 민간단체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쌍방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도 합의 없이 접촉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4페이지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 지원입니다.

먼저 나진·하산 물류사업입니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과 러시아 철도공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나진항을 현장 실사하였으며 한·러 사업자 공동으로 나진·포항 간에 석탄 시범운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사 및 석탄 시범운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사안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과의 환담 시 겨울철 북한 어린이들에게 모자와 목도리를 전달하기 위한 북한 방문 의사를 표명하셨고 대통령께서는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1월 21일 개성에서 열린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관계기관 간의 실무협의에서 육로 방문, 어린이시설 방문, 지원 물품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방북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이희호 여사 측에서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방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문화 교류입니다.

정부는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민간의 접촉·방북은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문화 교류 접촉 405건, 방북 30건, 방남 7건이 성사되었으며 금년 6월 이후 각종 문화유산·종교 분야의 협력사업 및 공동행사와 인천아시안게임 등 체육 분야 교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면서 농축산·산림협력 분야로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409억 원 상당의 필수 의약품, 의료기자재, 영양식,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지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모자패키지 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모자패키지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환경 등 민생 인프라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그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7페이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입니다.

재가동된 이후 기업 생산활동은 점차 정상화되어 생산액, 근로자 수 등 주요 생산활동 지표가 가동 중단 직전인 2013년 3월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독일기업 1개사가 영업소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통 문제 해결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개성공단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 3통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은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여야는 각각 당 차원의 통합법안을 발의하여 11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어제 제3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연의 체계적 협업을 통해 통일 준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통일 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 등 5대 분야에서 17개 통일준비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류길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차로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표에 의거해서 양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장관님, 지금 현재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또 대북 지원의 돌파구를 농축산 협력 사업을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11월 25일에 보니까 대북 지원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소규모 비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2010년 5·24조치 이후에 대북 식량 지원 또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왔는데 이번 장관님 발언을 본다면 정부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실질적인 실현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북측과 오고간 내용이 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 봄에 대통령께서 독

일을 방문하셨을 때 '드레스덴 구상'에 농축산·산림 협력 이런 분야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축산 협력을 하려면 사실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북측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양창영 위원 금년 1월 1일 북한은 과학적인 영농·축산 활성화 방침을 발표한바 있고 또 우리 정부도 1월 6일 날하고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농축산협력계획으로 화답을 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라는 것이 실제로 식량 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식량 문제 해결이야말로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북농축산협력사업이야말로 현재의 긴장된 남북관계 개선 또 미래의 통일에 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좀……

○통일부장관 류길재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과거에, 좀 오래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농업협력 분야가 많이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험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북이 농업 분야…… 북한의 농업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농업기술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들이 처음에 착수는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북한이 실제로 자신들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소위 개발협력 이런 쪽에는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북의 거부감을 저희가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양창영 위원 무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약 150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없이도 남북농축산협력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측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하고 그 오·폐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건립이라든가 또 축산분뇨 처리를 통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볼 때 한 번에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북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지자체 협력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대북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민간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면 민간이라든가 지자체 협력을 처음부터 확 푸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해서 좀 질서 있게 교류협력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교류협력이 남북관계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쳐서 다시 또 지자체라든가 민간단체의 협력이 더 확산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좀 엉뚱한 질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지난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연성의 측면에서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9월에 뉴욕 유엔총회에서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북한이 제안을 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또 세계평화공원을 지으면 전쟁 억지력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좋은 정책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최근 이와 유사한 의미로 경기도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물론 유엔과 관련된 사안은 외교부의 역할이 크지만 유엔 제5사무국 유치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사무국 유치를 위한 주요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또 국가안보전략 과제로의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군비의 60%를 지출하고 있고 또 세계 인구 중에 그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유엔사무국이 없습니다. 유엔사무국 중에 제1사무소가 뉴욕에 있고 또 스위스 제네바에 제2사무소가 있고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데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장관께서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유엔 비엔나사무국 유치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엔사무총장이던 쿠르트 발트하임의 역할이 컸습니다. 현재 사무총장 재임 중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탄력을 받기 위해서 유엔 제5사무국이 다른 국가가 아닌 반드시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통일부의 역할에 맞는 그런 세부계획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나 수행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먼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통준위 3차 전체회의가 열려서, 지난번 2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제 준비위원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유엔이라든가 주변국들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작년 5월 이후에 DMZ 공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요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 왔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합의만 된다면 과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의선 도로를 통해서 매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물류가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해선은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해선도 역시 지금 뚫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DMZ 공원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공원을 저희가 착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DMZ 공원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해 놔서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정비해 놓고 그러나 역시 북한과 만약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북한 측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북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5사무국 유치 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5사무국 유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당부를 겸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북한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 교류협력 특례법 발의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지금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요.

이 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의 대북접촉을 특례법으로 허용해서 대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 승인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시 장관이 이에 기속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저는 아시는 것처럼 헌법 준수의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추진을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저희가 선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단순히 국회의원과 의회기구의 방북과 접촉을 무조건 승인해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에 만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면 통일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법률 8조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회합·통신 및 접촉을 하려면 위원장을 거쳐서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류협력으로 대북정책의 큰 틀을 해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의회가 깨트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됐을 경우에 민간 영역에서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서독의 사례도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독과 동독의 의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이런 대화 단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조건, 통일부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만큼 제대로 성과도 못 내면서 다른 데서 하겠다는, 특히 삼권분립에 의해서 의회가 하겠다는 일을 이렇게 막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특례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짧게 질문 겸 당부를 드리니까 장관께서 지금 이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기존에 통일부가 모든 것을 다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그냥 기존의 인식에서만 가지 마시고 당연히 국회는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잘 유념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드렸던 답변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부에 들어와서 2년 가까이 됐는데 행정부,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다른 국정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역시 주무부처와 그 관련되는 부처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역사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북정책을 할 때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방

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또 정책방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 분단 70년 동안 대북정책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과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조금 존중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희가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년 동안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고유한 권한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또 인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낸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나진-하산 물류사업 1차 시범 운송,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1월 28일 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이요, 이분하고 면담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갈루슈카 장관이 이타르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 TSR과 또 한반도종단철도 TKR 연결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한국 측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과 면담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또 장관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방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그런 의사를 장관이 저에게 피력을 했고요. 상당히 의욕적인 태도를 저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러 프로젝트에 이번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포함해서 남·북·러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렇지만 사실 러시아와 극동지방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또는 남·북·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진과 하산 철도를 연결한 것도…… 이 사업도 사실 역사가 꽤 된 사업인데 이제서야 저희가, 본 계약을 저희가 체결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시범 연결을 하고 시범 운송을 하고 저희가 또 실사까지 다 하고 한 것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진전이 크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갈루슈카 장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다,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사업처럼, 이번 사업도 이제……

○심상정 위원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갈루슈카 장관이 저에게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이미……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문제라든가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심상정 위원 혹시 포베다 프로젝트 이런 관련한 제안도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러시아 하산에서 북 나진에서 남 포항으로 물류가 이동하는 건데 이게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이야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또 철의 실크로드 개척이라든지 이런 모토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개막하려면 이런 절름발이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경의선·동해북부선 이런 기존에 연결돼 있던 남북철도 또 경원선 개통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종단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되고 남북철도가 개통돼야 되고 또 북의 철도가 현대화되는 사업이 필요한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평화공원과 관련해서도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수만 잔뜩 준비하면 뭐합니까, 결혼 당사자들의 관계가 진전이 없는데.

저는 통일부장관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준비가 아니라 관계, 남북관계, 이것을 어떻게 뚫어 낼 것이냐?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지금 통일부장관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핵심적인 과제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번 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이게 5·24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실 북한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남북 항구 사이의 해운협력 불허라든지 신규 투자 금지라든지 이런 5·24조치하고 불합치한 상황인데 이 사업의 안정적인 참가나 협력을 위해서도 5·24조치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장관께서 특히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하면서 통일부 대변인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남북 사이의 어떤 대화라든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 부처의 임무를 제가 한 번도 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남북 간 장기간의 경색이 지금 뚫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잘 이해하고 또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장관님 아까 또 보고하실 때 사회·문화 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최근에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지금 통일부가 하고 또 대통령이 제안한 이런 방식 갖고는 지금 남북 경색국면이 해결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위원님들이 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결의안도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만 열심히 나열하고 실무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을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러시아,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어떤 사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기를…… 돌파할 계기를 찾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장관께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柳在仲 委員 장관님 우리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말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폐회식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합의했는데 북측이 민간인 전단 살포 중단문제를 촉구하면서 무산됐지요, 그렇지요? 조건화 하면서 고위 접촉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柳在仲 委員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한껏 기대를 했는데, 아시안게임 이후에 북한 고위급들이 오고 그래서 기대가 부풀고 2차 접촉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단순한 이런 전단 살포의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2차가 무산됐다고 봅니까? 북한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뭐 이용한 것이냐…… 국민들한테 이렇게 기대를 잔뜩 줬는데 이 하나 빌미를 가지고 2차 남북 고위급회담입니까, 이게 무산되었느냐?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 일단 저희들은 북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柳在仲 委員 표면적으로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른 의도가 혹시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저희가 추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단문제는 10월 4일 날 고위급들이 내려오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柳在仲 委員 그러면……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10월 4일 날 고위급들이 내려왔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단문제를 들어서 이걸 응하지 않는 것은 억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유가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柳在仲 委員 맞아요. 그것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전단문제, 당초 처음부터 이런 고위급회담을 할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니냐, 다른 의도가 있느냐 하는 참…… 우리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다른 의도가 뭐 있겠지요, 아마 북한에서.

장관님 지난 12월 1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학술회의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한 수석연구원이 '북한은 대남 도발 이후 남한의 여론 움직임과 러시아·일본과의 관계 개선여부에 따라서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돌을 맞아서 경축 분위기의 조성 차원에서 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북한 핵실험의 재개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장관님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감안해 볼 때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柳在仲 委員 엊그제 1일에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반기문 총장에 보낸 항의서한에서도 스스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엄청난 국제적 긴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북핵 등 협의를 위해서 6자 회담 황준국 수석대표가 3일간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아마 내일 귀국해서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핵문제를 의논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도 그런 생각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柳在仲 委員 그래서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견고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柳在仲 委員 예.

○통일부장관 류길재 사실 우리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했고 핵능력이 점점 고도화돼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핵실험을 공언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행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단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저는 북한이 우리 쪽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우선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단문제 같은 경우에도 남북이 회담 테이블에서 만나서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전단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저희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북을 설득해서 회담 테이블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柳在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꽁꽁 얼어붙어서 풀리지 않고 있고 그나마 지금 남과 북, 러시아 협력사업으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기대, 하여튼 한낱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대박이고 뭐고 간에 뭘 하려고 그래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니 어떡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고 또 기울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지금 물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랑 러시아는 MOU를 맺은 상태이지요, 이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랑 러시아는 뭡니까? 이게 합작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우리랑 북한이랑은 어떤 고리가 있는 겁니까, 연결고리?

○통일부장관 류길재 말하자면 러시아 법인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간접 협력사업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5·24조치랑은 조금 배치가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것은 특수한 사례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배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5·24조치의 그 내용들 가운데서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24와 관련해서 5·24가 있으면 다른 우리 국익에 유리한 그런 사업들을 다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외교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이 협력사업 이 불씨를 잘 살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키워야 되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희들은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희호 여사가 북한 가는 게 지금 시기만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시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봄 정도……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가시는 거로 하고 시기만 안 정해진 상황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지금 물류사업 이것을 살려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희호 여사가 북한 가시는 것을 우리 정부의 특사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가는 성격 이런 걸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직 이 여사님 방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만 지금 서로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가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가신다면……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여사님 방북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여사님 방북을 특사방문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이 남북문제는 6자회담을 해서 풀리지도 않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대화 테이블에 안 나오겠다고 그런다면 하여튼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하여튼 중간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남북문제는 초당적으로 해야 되고, 남남갈등이 있어서는 될 것도 안 되는 게 또 남북문제라고 한다면 이희호 여사가 북한 가실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특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메시지를 갖고 간다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희호 여사님 방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대화 테이블에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6자회담을 한다고 해도 주변국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결국엔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얼어붙은 이 남북관계를 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희호 여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 류길재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북관계는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것은 정부 당국 간에 회담 제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당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당국 간에 푸는 거 좋지요. 그런데 당국 간에 풀려 그러는데 대화 테이블 자체에도 안 나온다고 하면 누군가라도 중재를 해서 테이블까지라도 나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당국자 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도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이든 유엔이든 아니면 이희호 여사가 특사 역할이든 아니면 정부를 대신하는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라도 해서 테이블까지라도 나오게끔 누군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당국 간에 뭔가 한 방에 대박이 터지게끔 하는 것만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려야 되는 거냐 하는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 답답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부는 정부가 할 도리, 예컨대 물류사업이라든지 인도지원이라든지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다 할 겁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물밑에서라도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봐도 되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 꼭 물밑이라는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부가 하여튼 남북 당국 간에 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통일부가 결국 그냥 당국자 간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또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문화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거 자체가…… 지금 문화사업을 내년에 같이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물밑이 됐건 어떻든 간에 구체적인 뭐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본격 사업 역점 추진할 계획, 그렇다면 이거 계획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이게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그거?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야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북을 설득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지금 당장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대화 제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웅래 위원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돼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웅래 위원 가능성 없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

○위원장 원혜영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委員 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6페이지에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을 보고 특히 모자패키지사업 이런 데 아주 잘 착안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영유아 결핵 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金光琳 委員 발병률이 3%. 인도 2.2%, 부탄 1.9%, 네팔 0.9%, 그다음에 우리 남측은 0.3%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이 1원 한 장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아직까지 북한과 의약품 지원은 현재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최근에 풀렸다는데 풀렸습니까? 우리 쪽은 풀렸는데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 委員 우리는 풀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 委員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예산 들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하면 결핵 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서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 500t이 지난달 29일 날 포스코에 왔습니다. 이것은 5·24 이후에 첫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5·24 예외조치로 허가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희는 예외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특별한 사업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委員 예, 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金光琳 委員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하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고 하산 오고 나진 오고 거기서 포항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기존 운송비에 비해서 한 20%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류의 사업들은 앞으로 발전시키겠네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金光琳 委員 개별 케이스 케이스마다 첫 물꼬를 텄으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金光琳 委員 그리고 하산하고 나진하고 54㎞ 철도를 러시아 측이 고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산이라는 것은 우리 땅이었거든요. 원래 함경북도 땅이었습니다. 하산이 한문으로 아래 하(下) 자, 뫼 산(山) 자. 중산, 하산 전부 우리 땅이었는데 그것도 우리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

그래서 이쪽 연결하는 거는 일단 그쪽 러시아 쪽의 철도, 나진항, 그리고 나진에서 포항으로 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십수년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예외를 많이 인정해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11월 달에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북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법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게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것 같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게 찬성·반대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단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간섭·불개입 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딱 두 가지는, 통일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꼭 바람이 북쪽으로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전단 뿌리는 경우가 있다. 또 사례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만약에 반대로 불어서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도 불간섭할 거냐.

두 번째, 대북 전단을 민간이 하는 것을 불간섭하는데 예컨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실어서 보내는 경우에도 불간섭할 거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이 점은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답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체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전단을 뿌리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혼란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

은 정부로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위원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정말 참 답답하네요. 지금 박근혜정부 2년 차가 넘어가도록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노웅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어쨌든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합의된 거 아닙니까? 시기만 지금 남은 건데 그렇다면 그 기회라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굳이 꼭 특사라는 그런 식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상식 아니에요?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더라도 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또 남북관계의 뭔가 돌파구가 되게끔 활용하셔야지요. 그게 통일부가 할일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

○문재인 위원 이건 뭐 시간 빼주셔야 되겠는데, 왜 답변 안 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선 이 여사님 방북과 관련해 대통령님 면담에서 여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사님 측에서도 이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방북을 말씀하신 것이고, 물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이렇게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정부가 뭔가라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계기라도…… 이런 취지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또 만약에 정말로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졌다고 한다면, 북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도 저희들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여사님께서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5~6월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문재인 위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고려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위원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관련해서 러시아하고만 지금 대화나 협의가 있고 북한 측하고는 그와 관련해서 아무 대화가 없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건 저희가 러시아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재인 위원 그러니까 북한 측하고는 아무런……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북한을 상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위원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고자 해도 북한이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하고만 대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요, 지금 사업이 아직 본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두 차례 실사를 다녀왔고 시범운송사업을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원이 거기를 가더라도, 물론 거기 가면 당연히 북측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설명을 다 듣고 대화를 나누지요.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의 파트너는 러시아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문재인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북한정부 간의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게 남북 간의,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주체는 러시아와 우리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우리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문재인 위원 그래요. 우리가 러시아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지만 그 일들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위원 북한하고 어떤 차원이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게끔 그렇게 또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시범사업이, 석탄수송이 우리 선박이 이용되지 않고 중국 선박이 이용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 그것은 북측이 거부를 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문재인 위원 아니, 그런 이유…… 지금 아직 우리 선박이 나진항에 입항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많은 수송이 이루어질 텐데 아니, 같은 값이면 우리 선박이 이용돼야 더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계속 중국 선박 이용할 겁니까, 제3국 선박 이용하고? 왜 북한하고 협의하지 않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직 본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위원 대북전단 때문에 당초 합의됐던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는데요, 그 대북전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통일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데 통일부가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겁니까? 하다못해 경찰에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조금 막아달라고 그걸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정부 차원에서 그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그러면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적절하게 질문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허용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 그런 것들은 그런……

○문재인 위원 만약에 거기에 USB 같은 그런 식의 북한에 도움이 되는 물자를 실어 보내도 괜찮은 겁니까? 그때는 뭘 가지고 단속할 거예요?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에 물자를 반출할 때는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그 승인받아야 될 물품들이 고시가 돼 있는데 그 고시 속에 인쇄물,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돼 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위원 대북전단 인쇄물 아닙니까? 아니, 그 인쇄물을 북한 쪽으로 반출하는데 그것이 북한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 해 가지고 허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가 필요할 텐데, 법이라는 게 다 똑같은 잣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까? 무슨 노력도 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 참, 통일부 '통일' 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장관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문재인 위원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에서 채택했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인권은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니까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그것이 국제적인 수준까지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이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과거 정부 때에는 우리 정부가 기권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기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습니다.

○문재인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을 꼭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결의안이 채택이 되게끔 하는 효과는 효과대로 거두면서 또 북한하고의 마찰은 좀 최대한 피해가는 그런 식의 현명한 대응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북한인권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COI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서가 나왔고, 북도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그 실상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난과 더불어서 더욱 더 북한의

인권 실상이 참혹한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의 그런 참상을 알면서도 사실은 외면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또 공동노력, 이번에 결의안 채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같은 민족의 문제로서 저는 거기에 좀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역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아까 개성공단 정상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 말에 의하면 아직도 공장이나 시설을 확장하는 이런 식의 신규 투자라든가 투자 확대 이것이 지금 허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주 애로가 많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게 5·24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5·24 문제를 다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미 다 입장을 알고 계시니까 역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5·24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문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 충남 당진 출신 김동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중국대사께서 오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대사님께 한 번 여쭤봤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유산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나 이쪽에서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한다, 핵화한다 이렇게 결정할 그런 룸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니까 대사님께서는 비핵화가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것은 북이,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유훈이다, 말하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것은 김일성이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근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 그것과 지금 현재 북한이 핵개발을 이렇게 서둘러 가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북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핵을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외부세계를 위협하고 또 어떤 협상의 여지를 얘기할 때는 김일성의 유훈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시계열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 개발하고 위성 개발하고 발사체 개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량·경량화해서 사실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깨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것 자체가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핵문제에 있어서는 불균형 상태로 가게 되고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고 또 그때 중국대사께서 6자회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 얘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또 지금 6자회담이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북핵 협상의 과거 역사를 보면 또 6자회담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뾰족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김동완 위원 그런데 중국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일이 한축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축인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국대사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국·외교부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이, 그 핵에 대한 진짜 북한의 속마음이 포기할 그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속에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한다면 지금 시계열적으로 보면 북한은 계속 경량화하고 있고 핵개발을 고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허용해서 미래의 남북대화에 있어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그것은 좀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북핵 불용, 북한의 비핵화 이걸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기존에 해 왔던 6자회담 방식을 다시 또 저희가 가동을 해서, 그러려면 우선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될 것이고요.

○김동완 위원 지난번에 주한미군사령관께서도 말씀하셨고 한민구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북한이 경량화한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남북 간에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로 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미래에 남북 간의 대화 문제, 평화적 해결을 하고자 하는 남북 간의 대화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 입장은 불분명하신 것 같아서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리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저희가 좀 마련해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력감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동완 위원 혹시 장관님 요즘에 나온 '독일 통일 막전막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요, 못 봤습니다.

○김동완 위원 독일대사관에서 와 가지고 국회에서 하길래 저는 봤는데요.

물론 그게 다큐이면서 다큐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배우, 배역을 사용해서 했던데 제가 놀란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영국 대처 수상과 프랑스의 대통령이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시면서도 러시아의 고르비가 이 문제를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싶은 그런 의사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불신이겠지요. 독일의 통일이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에 유리하다라고 생각들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에 가 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모스코바에 가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은 독일의 그런 평화적 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었을 때 우방들이 그렇게 취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우리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국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통일한국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한국의 통일이 결코 주변국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끼리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 합의할 수 있는 안이 곧 주변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청사진이 만들어져서 주변국의 신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몇 말씀 더 덧붙이자면 사실 통일이라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하려고 하는 우리 주체들의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정을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많이 고민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 국민이나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가게 되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저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관심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또 통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의지를 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우리 사회를 국제사회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의 공감을 저는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준비의 출발은 우선 우리 국내 사회에서의 어떤 관심과 준비가 저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한반도 통일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동북아의 세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역내에 있는 국가들이 당장은 그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따지기 이전에 우선 걱정부터 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건 독일 사례도 그렇고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사회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저는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 간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협력사업들뿐만이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또 남북이 해야 될 그런 일들에서, 그러면 그것이 경협사업이 됐건 무슨 교류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사업들에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러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남북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국제사회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 줘야지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나라들에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같이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위원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가 경제협력 강화를 하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와 경제적 관계가 협력관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과정에서 우방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독일이 통일되면 또 전쟁 일으킬 것이라는 것 때문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종황제께서 영세중립국에 대해서 헌법에 그때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지켜 낼 수 있는 자위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지 못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의, 국제질서의 변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종황제께서 영세중립국을 넣을 때도 국제질서의 변화입니다. 일본이 산업화를 해 가지고 동북아질서가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국제질서, 동북아질서의 재편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협 관계라든가 남북의 교류협력 관계에서 국제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측이, 대한민국이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쪽에 결핵약을 비롯한 필수의약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북한이 거절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 국제사회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민간단체들을, 정부예산을 통해서 민간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그중에서 의료 분야에 그런 협력사업들도 있는데 북쪽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받았던 것을 왜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남북관계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북측의 식량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다음에 장마당의 활성화라든가

소위 민간 부분의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돼 가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시장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북측으로 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던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식량의 기본적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좀 달리합니다.

○박병석 위원 장관께서 판단 달리한다는데 상당히 좋아진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이건 여러 가지 첩보에 저희가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원이, 남북관계가 중단되면서 자원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고 있고 또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요새 좀 소원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것은 장관이 오늘 아침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오늘 장관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제1쪽에 나오는 얘기하고 다른 말씀 하고 계세요. 경제상황은—오늘 1쪽에 나오는 겁니다. 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신 겁니다—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형적으로 다소 호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이 모순되지 않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 밑에 보면, 다만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으로 자원배분 왜곡과 외자유치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한은 과거에 남쪽의 도움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의약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년의 상황은 호전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호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 주민들의 생활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관상 좋아 보이지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또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박병석 위원 장관이나 우리 국회나 이 사태에 대한 진단은 정확히 해야 방안이 나오잖아요. 지금 일부 전문가 또는 상당한 전문가는 북한의 경제사정의 호전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기본 게임, 게임 체인지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전문가 열 사람에게, 열 사람 다 물어보면 북한의 식량사정과 경제사정이 호전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냐 하는 기본 전제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것을 명백히 해서 북한이 왜 저렇게 과거에는 아쉽게 받아 가고 요청하던 것을 제안하는데도 거부할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데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이 어느 계기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대북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해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70주년이 와 가지고 필요하다든가 할 때 언제든지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5·24조치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5·24조치를 취한 근본적 목적은 북한의 경제봉쇄, 목을 졸라서 북한이 더 이상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면 안 되고 국제사회로 나와라 하는 것

을 목적으로 5·24조치를 했는데 그 5·24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시켰단 말이지요. 물론 북한도 큰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 목적,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는 목적에서는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꼭 우리 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거기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남북문제를 스스로 풀지 않고서는 결코 6자회담이고 여러 가지의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호전됐지만 외교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니 일본이니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외교의 다각화를 꾀한다고 보이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단계는 또다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하고 같은 입장에 서고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이 같은 입장에 서서 소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자회담의 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필요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얘기해야지요.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문제가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아시아 전략의 일환이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우리 8000만 국민의 생사와 직결되고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방치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이것 우리가 조치를 취했는데 일정한 타격은 있었지만 핵무기가 자꾸 고도화되고 4차 핵실험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추어졌으니 더 고도화되기 전에 대화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 말씀의 기본 취지에 저도 동의합니다. 남북관계는 역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 위원 총론에서는 같은 입장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의 나진-하산의 문제는 사실상 5·24조치하고는 정면 대치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나진-하산의 제3국 협력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5·24조치하고는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회적 조치다, 예외적 조치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면 대치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5·24조치를 풀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근본적 관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북측에도 지금 서로 일정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으니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구태여 국회에서도 정부가 5·24조치를 실질적으로 철폐할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이런 압박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제가 누차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 회담 테이블에 나와라, 나와서 문제를 풀어 나가자 그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왜 과거에 받던 기본적인 인도적인 지원도 마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서 러시아하고 일본으로 유럽으로 다니는 국제적인 흐름에 관해서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북 문제를 풀기 어렵다. 만약에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가 강대국들에 휘둘리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반드시 해결하되 이게 단계적 조치를 할 것이냐 포괄적 협상을 할 것이냐는 신중히 생각하되 저는 포괄적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 정치·군사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경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엇갈리면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록 위원 장관님,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떤 소신과 철학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유연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제가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록 위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금년 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정록 위원 그러면 대박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주로 뭡니까? 지금 장관이 생각하는 대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 젊은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고, 그 대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통일이 되면 많은 이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또 안보적인 측면 여러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록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는 통일에 우리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기성세대들도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통일은 불가능하다, 통일은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관심이 되는 것이지 가능성을 보여 주고 미래에 대한 역할이 나올 때에 젊은 세대들도 이것 통일이 되면 우리 삶도 변화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서로 왕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록 위원 그러면 통일부의 역할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통일에 대해 대박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온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 때는 통일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관심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통일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통일의 편익이 됐건 혹은 통일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의 측면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게 사실은 자라나는 세대들부터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참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하는 점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같이 MOU를 맺고 앞으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정록 위원 지금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교육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얼마 전 7월 달에 저희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한 2시간 이루어지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2시간인데 1년에 2시간입니다. 1년에 2시간 이루어지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록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이나 모든 사회 분위기 조성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생각할 때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분단국으로 고착화됐을 때는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통일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과 중국, 미국이 우리 사이에 끼어서 남북 분단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고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당국자 회의가 제일 우선이다, 이희호 여사도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아니고 북한이 끼어 있잖아요. 하산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역할 분담을 해서 통일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통일부에서 홍보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장관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문재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2015년도는 통일에 대한 기반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5·24조치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선물도 주고 또 만나서 점심도 먹고 데이트도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당국자만 핑계 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은 절대 현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는 교육 문제나 분위기 조성 또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통일밖에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불어 넣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줘야지 장관으로서의 주체가 타 부처의 역할만 부여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제가 하여튼 지금 김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록 위원 장관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다고. 2015년도는 꿈과 소망을 가지는 통일이 대박이 날 수 있게끔 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제가 한 말씀 혹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록 위원 예.

○통일부장관 류길재 제가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남북관계특위에 와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서는 그것은 북에게 책임이 있지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 같이 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역시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로 대북정책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따로 통일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록 위원 당연하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는 같이 굴러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단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깊이 숙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록 위원 아무튼 2015년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통일 문제가 대두돼서 소망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2015년도의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장관이 이것을 유념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잘 알겠습니다.

○김정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희 위원 통일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내가 국방부장관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라는 게 생긴 이유가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정부 내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협력의 길로 가자, 이런 것을 하려고 통일부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부처를 보십시오. 경제부처가, 예를 들면 기재부가 다 틀어쥐고 있어서 사회복지 하자, 노동개혁 하자 그러면 반대하고 안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장관이 싸워야지요. 그걸 그냥 물러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그것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을 왜 안 합니까? 정부가 교과과정을 편성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서해교전이 있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협력을 계속해 갔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요. 지난 2년 가까운 동안 통일부가 이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당국 간 접촉이 중요하다' 정부 간 접촉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북전단 그것 하나 조정을 못 해서 고위급회담을 결렬시키는 것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8월 18일 장관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2014년도 시행계획 발표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이목희 위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목희 위원 아니, 계획대로 다 된 게 아니라 된 게 없어요.

제가 볼까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상시적 대화채널 개설, 남북합의 이행점검단 운영, 아무 것도 된 게 없지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하는데 1만 6000명이 희망했는데 돈이 없다고 올해 1200명만 해 주는 거예요. 유전자검사 희망자가 2만 명인데 대상자는 2000명밖에 안 돼요. 이런데도 돈을, 이게 큰 돈 드는 게 아닌데 돈을 못 써서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 주기 다 글러먹었어요, 지금.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대북 전단 하나를 조정 못 해서 고위급회담을 결렬시키고 아시안게임 북한응원단 문제도 하나 매끄럽게 처리 못 했어요. 아까 말했던 이산가족 영상편지, 유전자검사 그것 왜 못 합니까? 그것 이분들의 참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이분들 이것이라도 한번 해 보고 죽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1만 6000명이 한다는데 1200명밖에 못 한다, 유전자검사 2만 명 한다는데 2000명밖에 못 한다, 통일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관계개선을 하려면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줄 것은 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말 중에서 사실과 달리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게 별로 좋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라고 하는, 특히 남북 간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역시 남북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남북관계가 잘 되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싸워서라도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참 답답한 게요……

제가 또 똑같은 대답을 상정하면서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들이 나진-하산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러시아 지분의 일부를 우리가 흡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 말씀대로 참 좋은 일이고 국민들이 환영하고 이것은 남북, 러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러시아 지분을 우리가 인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나진항에 일부 투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승인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북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조치를 유지하고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사업도 잘 되기 힘들고 더 이상 남북경협이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 사업은 저희가 5·24와 상관없이, 관련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5·24조치를 유지

해 가지고는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기 어렵잖아요? 5·24조치가 무슨 헌법이라도 되나요? 이것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거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고집하세요? 누가 정부 내에서 그런 걸 강경하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터놓고 얘기를 좀 할 수 없나요?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사업을 추진할 때 통일부에 협력사업 승인신청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민간이 자기들이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것은 지금 한·러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이목희 위원 아니, 한·러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나진항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물품을 이동할 수도 있고 현지 자재가 국내에 반입될 수도 있고 이런데 통일부에 협력사업 승인신청 없이 그냥 할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물품이나 사람이 갈 경우에는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목희 위원 그것 5·24조치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5·24와 상관없이 저희가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뭡니까? 5·24조치가 있는데 5·24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터놓고 5·24조치도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했다시피 통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관심이 많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통일부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책임이지요. 이것 왜 엉뚱하게 다른 데 핑계를 댑니까? 같은 정부부처에서 통일교육 좀 많이 하자고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서도 하는 것이고, 이런 협력을 위해서 통일부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할 일이지 3자가 평가하듯이 하세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도 중요하고요, 통일부의 평소 활동도 중요하고 남북이 화해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통일부장관이 '내가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책임자다' 이런 인식으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목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 앞으로 더 그렇게 말씀하신 데 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제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만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것이 하루 이틀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저희 정부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체계를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건데 5·24조치가 내려지게 된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 때문에 그 당시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적어도 그것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때 왜 한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지금까지 4년 동안 그걸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해 왔는가 이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게 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벌써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제하는 것은 그 조치가 내려지게 된 배경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든 것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2차 고위급접촉에 전단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조차도 저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북한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작년에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고 장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관이라면 바로 할 일이 교육부장관 만나서 '교과과정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 만나고 해서 그것 하셔야지요. 아니,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아니, 그 성과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게 금방 학교라는 곳이 당장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과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교육은……

○이목희 위원 그러면 그걸 이루어 달라고 교육부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습니다. 교육부 또 교육청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김정록 위원님께서도 힘주어서 말씀하셨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열기가 참 충격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특히 사회지도층의 공동 책임이 있지요. 그중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대박이다' 하셨어요. 통일이 대박이라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그동안 과거 정부가, 특히 최근 7년 동안 '통일이라는 것은 비용이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통일되면 왜 내가 세금 내서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균형감각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려면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편익이 있느냐를 같이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일 편익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강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산학연, 정부가 같이 연구를 해라,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한테는 '23개 연구소가 합동으로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제가 각 23개 기관에 '내년에 무슨 연구할래' 해서 다 받았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식적인 인용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시에 폐쇄하거나…… 정말 지극히 국제 규범과 배치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독일에서 사무소 하나 냈다, 긍정적이네요. 러시아 장관 만났을 때도 개성공단 진출 문제가 논의됐다면, 러시아라도 데려와서 국제 기업이 들어가면 북한이 함부로 그렇게 못 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 장관님,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남북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남한보다는 북한 쪽의 급변하는 변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됐을 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나중에 세계열강들에게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 것은 동독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한 45%가 어떤 급변사태가 생기면 중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했고, 한 35%는 북한 스스로 자립 갱생을 한다 그러고 남한에 의존한다는 것은 14%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의 인식 개선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인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야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여당 쪽은 인권 존중 쪽을 많이 강조한 것 같고, 새정연 의원님들께서는 인도적 지원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 누구도 인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적 지원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가 지혜를 잘 발휘하면 여야의 합의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장관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통합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정착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적극적 정책을 펴기에는 본인들이 재정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 자세를 펴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다문화가족보다도 탈북자들이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 현상들이 생겨서…… 다문화가정들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동일한 수준에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 민주체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번 5·24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어떤 말씀들이 계셨느냐 하면, 대통령의 행정 교서 발표로 됐는데 이것이 좀 더 국제법적인 법적 틀 속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던데 장관님 의견은 어떤지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서 출구전략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진-하산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장관님께서 일부 위배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5·24조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대화로 간다든가 협력관계로 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남북대화를 위해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확고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 막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선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한다면 원칙은 지켜 나가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출구전략으로 포함한 입법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선 마지막 말씀부터, 5·24를 법적인 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출구로 한다는 말씀은 제가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봐야 되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저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와 있듯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를 남북의 특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5·24 문제는 남북 두 당사자가 대화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일단 제가 지금 초동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유념하고…… 사실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이지만 예산 문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

○김동완 위원 이해합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만 70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체계 속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사회복지체계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는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가, 관리라는 표현

이 좀 어떨지…… 효율적인 보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완 위원 장관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차원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독교계하고 민간단체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액션이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도 통일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협력관계를 가져오는 것.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더라도 저희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새롭게 개선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흡하지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법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말하자면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 상황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돼 가지고 갈등의 소재가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의견들을 모았어야 되는 문제이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죽돼 왔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또 이것이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합의해 이루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법이 좀 부족하면 그것은 나중에 또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장관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일부 입장은 민족 내부 문제로 그런 입장을 갖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완 위원 통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먼 미래의 남북대화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북한도 국제법 틀 속에서 논의하고 국제법 틀 속에서 룰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북대화를 할 때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족 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제법적인 준수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찬 프로그램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 현황과 남북협력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평양과기대의 이병무 치대학장을 모시고 강연회를 갖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양과기대는 외국의 동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는 북한의 유일한 사립학교입니다.

첫 회의 이후 오늘 제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의 대부분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과 겹쳐 바쁘신데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광림	김동완	김정록	노웅래
문재인	박병석	박홍근	심상정
안덕수	양창영	원혜영	유재중
이목희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관	류길재
통일정책실장	김기웅
정세분석국장	정준희
교류협력국장	백태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이강우
남북회담본부회담기획부장	이수영